

‘카톡 선물하기’ 가맹점주 부담 뚝 수수료 낮추고, 정산주기 1개월로

공정위,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
카톡 선물하기 수수료 14%→8%
정산주기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

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율 인하와
모바일상품권 정산 주기 단축을 골자
로 한 ‘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’이 이달
19일부터 시행된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프랜차이즈
산업협회와 함께 상생 방안에 참여할
가맹본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
다. 신청은 3월 4~14일(1차)과 17~31
일(2차)로 나눠 받은 뒤 이후 상시 접수
로 전환한다. 가맹브랜드 상생방안은
19일부터 시작된다.

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은 가맹점주
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4%였던 카카
오택 선물하기 수수료율을 8% 이하로
낮추고,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들의 정
산주기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
축하는 내용이 골자다.

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인하 대

상 가맹본부는 8% 이상 수수료를 적용
받는 곳이다. 단, 수수료 인하 효과가
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에게 전달되
도록 한 상생방안 취지를 고려해 8%로
수수료를 인하 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
맹본부가 카카오가 낮추기로 한 수수
료 인하분을 모두 가맹점주에게 귀속
되도록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.

가맹본부가 수수료 50% 이상을 분
담하고 8%로 수수료를 인하한 후에도
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3%를

초과할 경우 추가로 우대수수료 신청
도 추가로 가능하다. 이 경우 가맹본부
와 카카오가 분담해 가맹점주 수수료를
3%로 낮출 수 있다.

이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본부는
카카오와 모바일상품권 발행사 간 3자
계약과 함께 카카오택 선물하기 모바
일상품권 재등록을 거쳐 혜택을 적용
받을 수 있게 된다.

카카오는 6월까지 상생방안을 시범
실시한 뒤 7월1일부터 정식 도입할 계
획이다. 약 3개월 시범 기간을 합하면
3년으로 정한 상생방안의 실제 효과가
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.

정산주기 단축신청 대상은 모바일상
품권을 발행하는 11번가, 즐거운, 쿠프
마케팅, KT알파 등 4개사를 이용하며
기존 정산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
부다. 4개사 외에도 발행사인 섹타나인
은 그룹사인 SPC 소속 2개 가맹브랜드
(파스쿠찌, 잠바주스)의 정산주기를 기
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.

/세종=한용수 기자 hys@metroseoul.co.kr



온실가스 감축 타당성조사 지원 대폭 확대

산업부-코트라, 오늘부터 신청 접수
77억 투입... 기업 부담 줄어듦

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
진흥공사(코트라)는 5일부터 ‘2025 산
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’ 타당성
조사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4일 밝
혔다.

이 사업은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
기관이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추
진하는 사업의 ‘예비 및 본 타당성 조
사’를 지원하는 것으로, 산업·발전 부
문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대상
이다.

산업부와 코트라는 2025년도 공모사
업을 전년 대비 ▲지원 규모 및 한도 확
대 ▲접수 시기 증대 ▲지원 비율 상향

조정 등 제도를 개편해 보다 많은 감축
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.

‘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’은 2030년
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약 40%
감축하는 우리나라의 ‘2030 국가 온실
가스 감축 목표(NDC)’ 달성을 위해 마
련됐으며, 산업·발전 부문 국제감축 실
적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탄소
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.

산업부는 수탁기관인 코트라, 한국
에너지공단과 함께 2023년부터 2년간
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시범사업을 진
행해 왔다. 그 중 ‘타당성조사 지원사
업’은 ▲공정개선 ▲바이오매스 ▲에
너지 효율 등 6개 분야 15개 사업을 선
정해 총 35억원을 지원했다.

올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총 규모

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7억원
이다. 기존 연 2회 공모 방식에서 연중
상시 접수로 변경해 더 많은 사업을 적
시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. 지원 한도도
상향 조정된다.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
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, 본 타당성 조
사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.
지원 비율도 80%에서 90%로 높아져
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.

기업들은 국제감축사업의 사업화
단계에 따라 ‘예비 타당성 조사’ 또는
‘본 타당성 조사’를 선택해 신청할 수
있다. 매월 공고에 따라 접수된 사업은
월별 마감 후 평가 및 최종 심의를 거
쳐 선정되며, 중간 점검과 사업 완료
결과를 제출하면 최종 평가 절차가 진
행된다.

/세종=한용수 기자

농어촌공, 해외박람회서 농기자재 수출 지원

해외 농업박람회 5곳서 한국관 운영

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5개 해외도
시에서 예정된 농업박람회에 참가해 K
-농기자재 수출 확대에 나선다.

농어촌공사는 이달 12일 열리는 베
트남 원예·농업기술 박람회를 시작으
로, 올해 해외 농업박람회 5곳에서 한
국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.

상반기에는 국내기업 28곳과 함께
아시아시장 개척에 나선다. 1만5000명
이상이 방문하는 ‘2025년 베트남 원
예·농업기술 박람회’와 2000개 이상 기
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농업박람회
인 ‘2025년 중국 국제 농화학·작물보호
박람회(CAC 2025)’에 참가한다.

하반기에는 ▲인도네시아 농기계·
농업기술 박람회 ▲독일 농기계 박람
회 ▲튀르키예 농업박람회에서 한국관
을 조성한다.

농어촌공사는 국내기업이 해외박람
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국관을 운영
하고 있다. 작년에는 74개 기업과 함께
농기계, 시설자재, 친환경농자재, 비료
등 다양한 농기자재를 선보인 결과,
974건·1억1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
담을 이뤄낸 바 있다.

공사는 한국관 조성에 더해, 상담이
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부스
별 전문 통역사, 바이어 매칭, 국가별 최
신 시장 분석과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
지원할 계획이다.

/세종=김연세 기자

산업인력공, 국가승인통계 4년간 ‘최우수’

인력 정책수립 기초자료 등 활용

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‘국가
기술자격통계’가 통계청이 주관하는
‘2024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’에서 4
년 연속 최우수 등급(우수)을 획득했다.

통계청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는
2024년 기준 777종의 국가승인통계 품
질을 평가해 5등급(우수·양호·보통·주
의·미흡)으로 분류하는 제도다.

국가기술자격통계는 ‘자격기본법’

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된 기
술, 기능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정보를
정리한 통계로, 공단은 1984년부터 매
년 응시, 합격자 등 통계를 작성·보급
해왔다.

2023년에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
으며,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로 발간해
정부와 지자체 인력 정책 수립 기초자
료로 제공되고 있다. 또 전 국민 진로
설계 과정의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.

/세종=한용수 기자

권익위, 반부패·청렴 정책연구 논문 공모

학술지 게재, 원고료 최대 200만원

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학술지
‘권익’을 발간하기 위해 4일부터 오는
5월 30일까지 논문 원고를 모집한다고
4일 밝혔다.

논문 주제는 ▲반부패·청렴 정책 및
제도 개선 ▲민원 등 국민 고충처리 및
제도개선 ▲행정심판 제도 및 재결례
등에 관한 제반 연구다.

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

문은 학술지 ‘권익’에 게재하고, 저자에
게 최대 2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.

학술지 ‘권익’은 이번 공모를 통해
논문 등 모집, 심사 및 편집을 거친 후
10월 발간한다. 학술지에 최종 게재된
우수논문은 법·제도 개선 등 정책자료
로 활용한다. 또 공직자 청렴교육을 전
담하는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
함해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이론
적 토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.

/세종=한용수 기자

귀농 이유 ‘자연’... 5년차 연소득 3621만원

농식품부, 귀농·귀촌 실태조사

귀농을 택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절
반이 자연환경(31.9%) 또는 가업승계
(20.0%)를 꼽았다. 귀농 5년차의 연평
균 가구소득은 3600만 원 수준으로 조
사됐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
내용의 ‘2024년 귀농·귀촌 실태조사’
결과를 발표했다.

귀농 이유는 자연환경(31.9%), 가업
승계(20.0%),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
성(19.8%) 순이었다. 귀촌의 경우 자연
환경(19.3%), 정서적 여유(19.0%), 농산
업 외 직장 취업(19.0%) 순이었다. 하지
만 청년층에선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
능성(30.5%)을 꼽은 비중이 가장 컸다.

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
은 3621만 원, 귀촌가구는 4154만 원이

었다. 귀농 첫째 가구소득(2763만 원),
귀촌 첫째(3757만 원)에 비해 각각
31.1%, 10.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
은 평균 농가(5083만 원)의 71% 수준
이지만 농업소득은 1600만 원으로 평
균 농가(1114만 원)보다 오히려 43.6%
높았다. 특히, 귀농교육을 이수한 농가
의 농업소득이 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
에 비해 높아 교육이 귀농 후 농가의 소
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.

/세종=김연세 기자 kys@

오늘의 날씨

해돋이 / 06:58 | 해질 / 18:30

3월 5일 (수) 음력: 2월 6일

수도권 날씨 0 ~ 9°C

운동 지수, 빨래 지수, 세차 지수, 외출 지수

지역별 날씨: 연천 -2/9, 동두천 -2/9, 파주 -3/9, 가평 -2/8, 서울 0/9, 양평 -2/9, 인천 0/9, 수원 0/9, 용인 0/9, 평택 -1/10

자료제공: Kweather 케이웨더(주) www.kweather.co.kr



▲중, 美농산품에 10일부터 10~15% 보복관세...
트럼프에 ‘맞붙’
▲호주 총리 “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파병
고려” /사진 뉴시스

▲트럼프 “TSMC, 1000억 달러 대미 투자” 공식
발표
▲BYD의 거침없는 진격... “차에 드론 탑재”+8조
원 조달

▲‘친러’ 미얀마 군정 수장 모스크바행...푸틴과
회담 예정
▲절망 내몰린 가자지구...인도적 지원 막은 이스
라엘에 국제사회 비판 쇄도